

한 “봉합이나 결별이나” 기로에

정운찬 빠지자 ‘孫 대안론’

이재오 최고위원 사퇴땀 당 분열 가능성 李 “신중해야” 만류... 朴 “쇄신안 수용을”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라며 이 전 시장 측의 쇄신안 수용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박 전 대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은 “이재오 최고위원의 사퇴는 당을 깨자는 것”이라며 “이 최고위원의 사퇴로 당이 분열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전 시장 측에 있다”고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섰다.

한편, 강재섭 대표는 이날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상임고문단 21명을 초청해 만찬회동을 갖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의 사퇴 여부가 결론 지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재오 최고위원의 사퇴를 목안한다면 한나라당이 결국 분열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이재오 최고위원은 사퇴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명박 전 시장이 이를 만류하는 듯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1일 오전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시장과 단독 회동을 갖고 사퇴 강행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만류했고, 캠프 내에서도 강은 기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시장 핵심 관계자는 1일 “이재오 최고위원의 의지가 강해 이 전 시장이 만류하는데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결론 지어진 것은 없으며 막판 조율 여부에 따라 이 최고위원의 사퇴 여부는 내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부 진통을 반영하듯 이 전 시장과 이 최고위원은 측근들에게도 행적을 알리지 않은 채 ‘잠행’을 통해 몰래 조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택하게 되면 지도부의 해체는 물론 추후 당권을 둘러싼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의 대결구도는 더욱 심화되면서 경우에 따라 분당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재오 최고위원이 지도부 잔류로 선회할 경우 한나라당 내부는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

면서 ‘경선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결단이 늦어지자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이명박 전 시장이 당을 분열로 끌어가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산업재해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인천 중앙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있을 대사를 앞두고 당이 빨리 안정돼 한 마음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으로 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상임고문단과 가진 만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등 범여권 지역서 급부상 중도개혁 장점 ... 뿌리가 한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방향타를 상실한 범여권에 ‘손학규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후보군이 포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 전 총장의 ‘공백’을 메울만한 대안으로는 외부주자 진영을 대표하는 손 전 지사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범여권 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범여권의 정서적 지역기반인 호남지역에서도 범여권 통합작업이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하면서 손 전 지사를 대안으로 여기는 세력이 머리를 들어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단계에서 손 전 지사는 범여권 대표주자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연초부터 줄곧 범여권 후보자력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점은 최대 기대어인이기는 하다. 그의 중도개혁 성향도 범여권이 추구하는 노선과 맞아떨어진다. 비록 한나라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범여권의 짝 세력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색깔’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호남 출신이면서 범여권의 전통적 지역기반인 ‘서부벨트’의 한 축인 경기도 출신이라는 점도 범여권이 주목하

는 대목이다.

손 전 지사와 지역적 연고를 같이하는 열린우리당 수도권 지역 출신의원들이 손 전 지사와 적극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손 전 지사는 결국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정서적 괴리감이 범여권 후보로서 가장 큰 약점이다. 때문에 손 전 지사가 비록 한나라당 시절부터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 것.

특히 전남 ‘선진평화포럼’ 발족을 계기로 대선행보를 본격화한 이후 가장 먼저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로 ‘직행’한 것도 이런 흐름으로 풀이된다.

결국, 관건은 손 전 지사가 범여권의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 상승을 몰고올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본격적 세력화 시기는 다음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부겸·조정식 의원 등 수도권 의원 10여명은 지난달 30일 저녁 여의도 모식당에서 회동, 손 전 지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장과 함께 유력한 외부주자로 거론돼온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정 전 총장의 중도화차에 따라 대권도 전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뉴라이트연합, 강대표 사퇴 촉구

신당모임 7일 독자신당 창당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1일 4·25 재보선 참패에 따른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 논란과 관련, 강재섭 대표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국민행동본부, 전국포럼연합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부패하고 자기개혁에 철저하지 못한 채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면서 “변화와 쇄신 없이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 간다면 연말 대선에서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강 대표가 어제 발표

한 쇄신안은 민심을 추스르기엔 너무나 미흡하다”면서 “한나라당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는 힘들다. 조삼모사의 미봉책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 대표의 쇄신안은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눈가림으로, 당내 균열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라도 한나라당과 국민 사이에 벌어진 깊은 갈은 메워줄 수 없다”면서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강 대표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자기희생적인 사퇴로 책임임지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의원 등 불참키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모임이 독자적으로 신당을 창당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통합신당모임은 1일 오전 창당준비위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중도개혁통합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양형일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한나라당(128석), 열린우리당(108석)에 이어 의석규모 20여석의 제3신당이 출현하게 됐으며 범여권은 우리당, 민주당, 신당의 3당 체제로 재편돼 각개약진하는 모습이 띠게 됐다.

그러나 통합신당모임의 통합추진 위원장인 이강래, 우윤근, 전병평 의원 등 5~6명이 독자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형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만간 3~4명의 의원들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어서 교섭단체 구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중심당에서 탈당한 신국환 의원은 이날 통합신당모임에 정식 가입을 원하며, 신당 창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은 좌우·동서 아우른 정치개편 원해”

탈당 후 첫 광주 손학규 전 지사



실사구시의 실용적 리더십이여야 함은 물론, 시대 정신이 그 리더의 삶 속에 체화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하를 가지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지, 나아가 개발경제의 구상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지 심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빅2’를 겨냥했다.

한나라당 탈당 배경과 관련, 손 전 지사는 “93년 정계 입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군·금융 개혁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민자당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나 내가 한나라당을 바꿀 가능성이 제로(0)가 되고 나의 정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새로운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지사는 최근 정계에 돌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교감’에 대해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9월부터 3개월의 일정으로 평양을 다녀온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 말이 도는 것 같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람직한 범여권 통합은 양 극단을 극복하고 좌우·동서를 크게 아우르는 융합·통합정치라는 새 정치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정치 개편’입니다.”

지난 3월 19일 한나라당 탈당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일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계개편은 통합을 위한 통합, 과거 정치세력이 주니만 바꾸는 것,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호남 지역발전 구상과 관련 “고속철도로 광주에 오다 보면 대전 이남부터는 시속 표시가 모니터에서 사라진다”며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발전 계획은 앞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또 “1993년 첫 국회의원이 된 이후 매년 5·18 묘역을 찾았지만 탈당 후 처음 찾는 이번에는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며 “5·18은 우리 민주주의 상징이고 민주주의의 내용을 담은 진보와 개혁의 상징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 통일의 상징으로 돼있는 만큼 ‘광주 정신’을 계승, 21세기 리더십으로 선진 평화의 미래를 열겠다”고 광주 방문의 소회를 밝혔다.

손 전 지사는 21세기 리더십에 대해서 “독선적이고 과거지향적이며 밀어붙이기식 외형성과 지상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인간중심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면학분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이 기회! 개강 5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후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국비무료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재직자과정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주택관리사 주말반(토, 일) 교육기간: 5/5~7/1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관리실무, 시설개론 (토 14:00~18:00, 일 10:00~17:00)
공인중개사(월~토) 교육기간: 5/1~6/30	민법, 법령, 세법, 공시법, 부동산학개론, 공법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주택관리사(월~토) 교육기간: 6/4~7/31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관리실무, 시설개론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사무자동화(월~금) 개강: 5/13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회계 교재무료제공

기타 사항

-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
- 기타사항: 수료후 100% ~ 80% 환급
- 접 수: 수강절차: 훈련신청 ▶ 훈련수강신청서 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저자 직강

• 전남여고교복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 예술의거리입구구 동양56, 금남56, 대촌70, 대촌170
• 문화전당역(구 도청) 주전월07, 칠단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동암81, 문흥80, 두암82, 518, 1187

노·농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232-1088
*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김재규 경찰학원 3층 * http://www.hdedu.co.kr

=행차부는 2011년까지 공무원 51,223명을 증원 할 계획이다=

7.9 공무원 완전 대비

기술직렬 ... 행정직렬 ... 공안직렬

시험 안내: 서울 지방직: 7월 8일 시행 1723명, 전남: 6월 23일 161명, 전북 지방직: 제2회 9급 행정, 사회복지·사서: 9월 8일 131명 공채, ※전남지방 7·9급 행정직 하반기 시험 시행 예정

※ 하반기 각 시·도별 9급 교육행정직 9월~11월 시행, 합격응이 ※

개강: 5월 1일 주·야(출퇴)반 모집

★강구이론반: 주간 2개월 야간 3개월 완성
★핵심이론+문제풀이반 4주완성반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농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5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료료 환급

주택관리사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한정교육 1위 전국수석 배출

광주 고시학원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옆 영광주연 4F)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대비반 개강 5월 1일
-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 08년 편입시험 대비반(일반편입/학사편입)

★수준높은 맞춤 커리큘럼: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김영(PMS)학원

www.kj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